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6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힘든 시기가 오더라도,
어떠한 것도 이 초자연적인 기쁨을 파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한 줄기 빛으로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에서 생겨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제125항)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서아시아(중동)의 난민 캠프에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온갖 고생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슬픔에 잠긴 노인과 심각한 어린이, 필사적인 부모들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은 낡은 텐트나 컨테이너에서 지내면서 추위와 낮은 환경을 견디고 구세주의 탄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다가올 축제에 대해 이야기하자 마치 진실로 구원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 어찌면 이토록 강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리아 그리스도인을 지원하는 우리의 사업을 생각할 때면 그 형제자매들이 늘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우리는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며 집과 성당을 다시 짓고 연대의 마음을 갖게 해 주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받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줍니다.

저는 이 모든 수혜와 배움이 여러분의 기부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모두가 은총 가득하고 행복할 줄 거운 성탄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제 벗들과 <사랑의 메아리> 독자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 희망을 품고 여러분께 성탄 편지를 드립니다. 아이는 대개 선물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성탄 카드를 쓰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각한 편지를 써도 될까 회의감이 살짝 들기도 하지만, 이것은 아이들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회의감은 제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시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채로 머물러 있기에 이 시대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께 아주 가까운 벗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지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지금 이 세상과 당신의 교회에는 빛을 비추어야 할 어둠이 가득 드리워져 있습니다. 저희는 성탄 대축일을 지내기 위해 만든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려 하지만 저희의 눈은 다시금 어두워지고 맙니다. 저희는 하늘과 저희에게 길을 알려 주는 베들레헴의 불빛 외에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마굿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인류에게 참 빛이 비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요한 1,5 참조).

이에 저는 당신께 단 한 가지만을 청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게 해 준 별을 보았을 때 느꼈을 그 커다란 기쁨 말입니다.

저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 주었던, 그러나 오늘날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이 넘치도록 천진난만한 기쁨을 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 곁에 계시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해방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 기쁨이 없다면 모든 것은 어둠일 뿐이고 저희는 상업적

으로 대량 생산되는 성탄 관련 상품을 소비하는 데 정신을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제 인생의 여정이 베들레헴을 비추는 행복한 별자리라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확신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께 기쁨을 청하며 기대하는 것은 매일 이기심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그저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당신께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저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확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기쁨뿐입니다. 이 기쁨은 나눈다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눌수록 더 커져 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탄 선물이며 저희는 미소, 기도, 사랑, 도움, 용서 등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선물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ACN과 함께 일하며 모든 기쁨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잘 아시며 사람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머무르는 곳 위에, 그중에서도 특히 당신께서 아파하시는 곳 위에 당신의 별이 빛나는 것을 봅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께 저희의 선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기 예수님, ACN의 모든 후원자와 봉사자, 직원,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이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의 은총을 가득 내려 주십시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이곳은 우리의 학교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학교를 다시 지을 것입니다.”
시리아 홈스에 있는 학교의 재건축 현장 © Ismael Martínez Sánchez / ACN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두 형제
“시리아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폐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마르 9,36) 어린이는 미래이자 교회 그 자체입니다. 후원자 여러분 덕분에 ACN은 시리아에서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으며 시리아 교회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었습니다.

마라는 ACN이 구한 어린이 중 한 명입니다. 우유, 식량, 옷, 의약품이 제공된 이 어린이는 ACN의 지원을 한 번 이상 받은 어린이 65,000명에 속합니다. ACN이 언제나 교회를 통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는 것처럼 이런 지원은 알레포, 홈스, 하마, 이德利브 등 전쟁의 참화를 겪은 도시에 있는 가톨릭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일부로나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성당이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은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신앙이란 확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저버리지 않으시리란 희망도 더욱 많이 있지 않을까요?

마리와 다른 아이들은 ACN이 지난 6년간 약 370억 원을 투입해 700개의 사업을 진행하며 수많은 어린이와 그 가족을 지원해 왔고 또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제 학교, 성당, 응급 의료 시설 등을 다시 지어야 할 때입니다.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유럽에서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시리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립니다. 아픈 이를 위한 병원이 없다면, 학생을 위한 학교가 없다면, 기도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성당이 없다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이들의 중심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껴안으시며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마르 9,3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00만 명이 넘는 난민 가운데 700만 명이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그중 수십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물질적, 영성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역 교회만 홀로 이 일을 하기에는 물자가 부족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지만 손이 비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교회이기에 이들의 손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시리아의 그리스도인과 폐허와 잿더미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알레포의 무너진 아르메니아 가톨릭 성당에서 기도하는 모습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고통받는 교회를 돕기 위한 성탄 선물

3만 원: 베네수엘라 수녀들의 생존을 지원해 주세요

베네수엘라의 성탄은 어떨까요? 발렌시아대교구가 관할하는 치르구아 지역과 산 크리스토팔에서 활동하는 맨발의 가르멜회 수녀들은 빈 접시를 앞에 놓고 기쁜 성탄을 보내야 합니다. 국가 부도 사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먹을 것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인들은 내일 뭘 먹을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치르구아에는 수녀 25명, 산 크리스토팔에는 각각 24명과 23명의 두 공동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녀들 또한 도대체 어디에서 빵이나 깨끗한 물, 의약품을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100달러가 있으면, 세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이 식탁에 빵 한 덩어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같은 100달러로 6개월간 수녀 1명의 생존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대림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1,000명이 3만 원씩 수녀들의 빈 접시에 올린다면, “내가 죽으면 이 땅에 장미꽃이 비처럼 내리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리지외의 데레사 성녀의 말씀과 같은 그 ‘장미꽃 비’가 되어 내릴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장미꽃은 치유이자 선교의 꽃이며 생명과 사랑의 장미꽃이 될 것입니다.



치르구아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회 수녀원

10만 원: 하느님과 함께 사는 집을 짓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와 베냉, 세네갈에서 그리스도인은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이 땅에는 이슬람 사원이 우후죽순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은 나무 밑이나 허름한 오두막에 모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비바람과 피약별을 피할 길이 없는 이런 곳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리 야쑈 마을의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본당에는 5천 명의 신자가 있는데 미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은 고작 150명만 수용 가능한 오두막 성전이 전부입니다. 본당은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2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새로 지으려 합니다. 새 성전에 골함석 지붕을 얹기 위해서는 약 6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베냉 세케구루와 세네갈 지긴쇼르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 지역에는 새 성전의 주춧돌을 놓을 돈이 부족합니다. 바로 지금이 전 세계의 형제자매 여러분과 ACN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각자 10만 원씩 지원하면, 아프리카 대륙의 신자들이 성전에 지붕을 덮고 무너진 벽을 보수하며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이신 교회의 옷자락 아래에는 그 어떤 소수 집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곳의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냉 세케구루의 쿠안데 본당



말리 야쑈의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 본당

청년들을 위한 묵주

마태오 복음은 헤로데의 율법 학자들이 동방 박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땅 베들레헨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마태 2,6)

헤로데가 통치하던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베들레헨은 아동 살해, 전쟁, 억압 등 얼룩진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베들레헨의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실존과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마태오 복음은 위의 증언에 이어서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마태 2,9)라는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성모님의 눈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베들레헨의 그리스도인은 올리브 나무로 묵주를 사업을 진행합니다. 베들레헨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삶을 이어 가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이는 전 세계의 청년을 평화의 기도로 초대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베들레헨에서 만든 묵주가 내년 1월 열리는 파나마 세계청년대회에서 청년들에게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세계청년대회에는 적어도 50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가자들은 베들레헨에서 만든 묵주를 2개씩 받게 되는데, 하나는 참가자 본인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청년대회에 오지 못한 각 나라의 청년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묵주기도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없습니다. 묵주기도는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역사의 핵심을 모아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헨의 그리스도인은 몇 달 전부터 묵주 100만 개를 제작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묵주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비 1달러 말고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베들레헨에 사는 200가구의 그리스도인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건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대로 청년 수십만 명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고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중동에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베들레헨은 희망의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ACN은 청년들의 손에 묵주를 쥐어 줌과 동시에 희망을 함께 쥐어 주려 합니다. **ACN은 이 묵주 지원 사업에 약 1억 2500만 원을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베들레헨과 파나마를 이어 주는 이 커다란 희망의 과업에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남수단에 계신 하느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타오르며 고통받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우간다 북부 지역의 남수단 난민 캠프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모습

이것은 곧 믿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뜨냐?”(루카 24,25)라고 이르셨습니다. 여기 하느님과 용서를 선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간다 중부 카티카무의 엠마오 센터는 남수단 내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웃나라로 도망쳐야 했던 난민들이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상담하며 조언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엠마오 센터는 특별히 사제와 교리교사가 난민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러나 담당 사제 및 교리교사 50명 중 1명이 14일간 이 일을 배우려면 약 17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50명을 모두 합하면 850만 원가량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력자 400명 중 1명을 교육하는 데에는 약 5만 원, 다시 말해 총 2000만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합니다. 난민 캠프에 모인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어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남수단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어째서 1955년부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인가?”, “다른 나라는 평화로운데 어찌하여 우리는 이런 지옥에서 살고 있는가?”, “내 아내를 죽이고, 내 아들을 납치하고, 내 가족을 흠쳐간 자들 내가 왜 용서해야 하는가?” 등 심각한 주제로 가득합니다. 은총 없이는 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교리교사와 사제들은 성당에 함께 모여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기도로서 치유받으며, 하느님의 현존은 동요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 줍니다.

수천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증오와 고통으로 피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힘으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수단과 인접한 우간다 북부 지역에는 대규모 난민 캠프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비디비디 캠프와 파톨리나 캠프에서 생활하는 난민 25만여 명은 고해와 성체성사뿐만 아니라 화해의 성사에 초점을 맞춰 교리교육을 받으며 에이즈를 막기 위해 특히나 중요한 윤리 교육과 혼인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심리 치료도 필수적입니다. 엠마오 센터는 말하자면 응급실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의 응급 치료는 수많은 이에게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이 되어 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서로 함께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었다!”(루카 24,34)라고 말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비디비디 캠프에서 난민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죽음을 넘어서

저는 가톨릭 신자로서 아들에게 미리 알려두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하늘로 부르시더라도 ACN에 계속해서 기부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활동이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 기도 안에서 하나되어 그 안에 머무릅시다. 하느님의 섭리에 우리의 계획을 맡겨 드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희망과 확고한 믿음을 유지합시다.



이라크의 고통받는 형제자매를 위하여

〈사랑의 메아리〉를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라크의 고통받는 그리스도인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동봉합니다. 이들이 니네베 평원의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위대한 가능성

보내 주신 소식지 감사히 받았습시다! 이처럼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미사 예물을 앞으로도 계속 봉헌하겠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고통을 함께 덜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손녀의 용돈을 보냅니다

제게는 손주들이 여섯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였던 이레네가 열여덟 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섯 아이들에게 방학 때마다 용돈을 주었는데, 이레네는 이제 하늘나라에 있으니 용돈을 보낼 은행 계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레네에게 줄 용돈을 ACN에 보냅니다. 저는 이것이 이레네의 뜻이라 믿습니다. 이레네의 용돈이 좋은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ACN 한국지부·가톨릭평화신문 공동기획 고통받는 교회를 도웁시다 - 미얀마 교회

ACN 한국지부가 지난 11월 말 이사장 염수정 추기경, 가톨릭평화신문과 함께 미얀마(버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당과 기숙 학교를 세우고 관리하는 엔지니어로서,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농부로서, 분쟁 지역 신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중재자까지, '슈퍼 히어로'로서 살아가는 미얀마 사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미얀마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전하는 특집 기사는 2018년 12월 16일자 가톨릭평화신문 제1494호부터 12월 30일 제1496호까지 3주간 연재됩니다.

♡ 시리아 캠페인



알레포의 파괴된 성 엘리아스 성당에서
불헌된 성탄 대축일 미사

시리아에 남겨진 사람들 #SyriaHearMyStory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결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고자 합니다. 이곳, 이 사람들의 고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입니다. 이들에게 전해지는 모든 지원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내미는 손길과 같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 안에 계십니다. 시리아의 형제자매들은 수년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계곡의 마르마리타 본당 사제
알리드 이스칸다피 신부

‘시리아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 시리아 난방 지원



(1.2월)
5만 원, 시리아의 추운 겨울 동안
난방용 연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리아 연말 기부

- 30만 원** 가톨릭 유치원 원생 1명의 1년 학비
- 80만 원** 재활용 종이 재생 공장 장애인 1명 고용비
- 500만 원** 자폐증 어린이 전문 교실의 시설 개선비
- 700만 원** 수녀원 운영 학교 교실의 1년 임대료
- 1000만 원** 난민을 위한 병원의 1달 운영비 (월 700명 치료)
- 3000만 원** 수녀원이 운영하는 학교의 1년 운영비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함께
시리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진: 대림 제1주일 삼중기도를 마치고 시리아에서 온 ACN 기도초에 불을 밝히신 교황님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예금주: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구글이나 네이버에 ‘시리아에 남겨진 사람들’을 검색하여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GN 시리아에 남겨진 사람들 **검색**

교황청
재단

